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2.7(금) ~ 2025.2.13(목)

제공일시 2025.2.21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

문의 02-398-7675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 기간: 2025.2.7(금) ~ 2025.2.13(목)

제공일시 2025 2 2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글로벌 정책

### 1. 또 '관세폭탄' 꺼낸 트럼프 “모든 철강·알루미늄에 25% 부과”

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%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9일(현지시간) 밝힘
- 무역 상대국에 미국이 받는 관세율과 똑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'상호관세'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함
-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'철강 쿼터제' 적용으로 이미 대미 수출 타격이 컸던 국내 철강업계에 또 비상이 걸림
-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관세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음

[\(머니투데이 2025.2.10\)](#)

### 2. 호주, 희토류 등 중요 광물·수소 생산에 세금 감면

- 호주가 희토류 등 중요 광물과 그린수소(탄소 배출 없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) 생산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을 제정함
- 12일(현지시간) 로이터·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, 전날 호주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
- 이 법에 따라 31가지 중요 광물의 생산업체는 사업별로 최장 10년간 처리·정제 비용의 10%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됨
- 그린수소는 1kg당 2호주달러(약 1천830원)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음

[\(연합뉴스 2025.2.12\)](#)

### 3. '지속가능·포용적 AI' 파리공동선언 채택... 미국·영국 빠져

-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담에서 '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'이 채택됨. 미국과 영국은 AI 패권 경쟁 속 자국 이익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음
- 11일(현지시간) 프랑스 엘리제궁은 프랑스와 인도, 독일, 한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(EU),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회 등이 회의 폐막 후 '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'을 채택했다고 밝힘
- 미국은 예상대로 이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음. 2023년 AI 안전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한 영국도 서명에 불참함. 반면, 중국은 서명에 동참함

[\(이데일리 2025.2.12\)](#)

## 국내 정책

### 1. 한-호주, 2029년까지 탄소배출 없는 항로 만든다

- 2029년까지 우리나라와 호주 간 항로가 운송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로 바뀔
- 해양수산부는 10일 호주 정부와 한-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한다고 9일 밝힘
-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△녹색해운항로 구축 △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△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△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함
-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·기술적·제도적 타당성 연구 및 로드맵 수립,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 공동 이행 등을 통해 2029년 시범 운항에 들어갈 예정임

[\(이투데이 2025.2.9\)](#)

### 2. 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%p 상향... 'K칩스법' 기재위 소위 통과

-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보다 5%p(포인트)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'K칩스법'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함
-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함
- 이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15%, 중소기업 25%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각각 20%, 중소기업 30%로 높아지게 됨

[\(헤럴드경제 2025.2.11\)](#)

### 3. 산림청, 2030년까지 부탄 6개 지역 산림 복원... 축구장 250개 규모

-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김 세령 부탄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흡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힘
- 산림청은 지난 2022년 부탄과 국제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음
- 산림청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취약해진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국제 협력사업인 '취약 산림생태계복원(SAFE) 이니셔티브'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부탄의 6개 지역에 약 179ha(축구장 250개 해당) 규모의 산림을 복원할 계획임
- 임상섭 산림청장은 "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 산림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"고 밝힘

[\(뉴스1 2025.2.12\)](#)

## 글로벌 기업

### 1. MS, 400MW 태양광 발전소 가동... 지역 경제·환경 기여 나서

- 에너지 전문 매체 파워테크놀로지는 11일(현지시간) 마이크로소프트(MS)가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소 3곳을 가동에 나서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발 나아갔다고 전함
- EDFR과 협력해 설치한 이번 발전소는 총 3곳으로,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 2곳을 더해 총 5개의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함
- MS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과 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(PPA)를 통해 389메가와트(MW) 용량의 전력을 구매함

[\(AI타임스 2025.2.12\)](#)

### 2. 프랑스 광산기업 에라메, 칠레 리튬 개발사업 진출

- 프랑스 광산기업 에라메(Eramet)가 칠레 리튬 개발 사업에 본격 뛰어들음. 글로벌 리튬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, 에라메는 리튬 자원 개발을 통해 입지를 강화할 방침임
- 캐나다 광산기업 '리튬 칠레(Lithium Chile)'는 지난 10일(현지시간) 에라메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. 에라메는 칠레 라마라 지역의 '몰리 베르디(Molle Verde)'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게 됨

[\(더구루 2025.2.12\)](#)

### 3. 중국 배터리 '공룡' CATL, 50억달러 규모 홍콩증시 상장 추진

-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소 50억달러(약 7조2600억원)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(현지시간) 보도함
- 소식통에 따르면, 이번 주 내에 상장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, 이르면 12일까지 서류가 제출될 수 있다고 함
- CATL의 홍콩증시 상장은 최근 몇 년간 침체됐던 홍콩 주식 자본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

[\(글로벌이코노믹 2025.2.11\)](#)

### 4. 니콜라, 파산신청 임박

- 한때 포드(Ford)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'제2의 테슬라'로 주목받던 수소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(Nikola)가 파산 보호 신청을 앞둔 것으로 나타남
- 6일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, 니콜라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각이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함

[\(아틀란타조선 2025.2.8\)](#)

## 국내 기업

### 1. 한전·두산에너지빌리티, 사우디 가스복합발전 건설 사업 '본격 착수'

- 한국전력과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함
- 지난달 전력구매계약(PPA) 체결과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며 사업을 본격화함
- 에너지 다각화를 내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'비전 2030'을 기회로 삼아 사우디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
- 한전은 작년 11월 사우디 전력공사(SEC), 현지 최대 민자발전사인 ACWA파워사와 컨소시엄을 꾸려 가스복합발전 사업을 수주함. 1.9GW 규모 복합발전소 2기를 지음
- 사업비는 1기당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정되며, 발전소 건설에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참여함

[\(더구루 2025.2.10\)](#)

### 2. 中 추격 빨라지자... 삼성, 시안공장 9세대 낸드로 확 바꾼다

-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286단(V9-9세대) 낸드플래시로 공정을 전환함. 낸드 시황 악화로 인한 기술적 감산과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됨
- 11일 업계에 따르면, 삼성전자는 올해 시안 공장 일부를 286단 낸드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. 상반기 중 286단 낸드 공정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반입해 월 2000~5000장 규모의 라인을 하반기까지 구축할 것으로 알려짐

[\(서울경제 2025.2.11\)](#)

### 3. '호랑이 굴' 가는 OCI홀딩스,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추진

- OCI홀딩스가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 나섬
- OCI홀딩스는 IR 자료에서 "OCI테라수스의 비중국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, 셀, 모듈로 이어지는 미국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구축을 논의 중"이라며 "이에 대한 첫 단계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셀 생산 합작법인을 준비 중"이라고 밝힘

[\(에너지경제 2025.2.11\)](#)

### 4. LX인터 "인니 니켈 광산 더 산다"

-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을 추가로 매입하고 구리 광산을 처음으로 사들이겠다고 7일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밝힘
- LX인터내셔널은 자원 사업에서 석탄 생산과 판매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, 앞으로는 니켈과 구리 등 유망한 광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한 것임
- LX인터내셔널은 니켈 생산량을 지난해 183만t에서 2028년 370만t으로 끌어올릴 계획임

[\(한국경제 2025.2.7\)](#)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 기간: 2025.2.7(금) ~ 2025.2.13(목)

제공일시 2025 2 21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## EU, CBAM 대상 기업 80%에게 탄소 국경세 면제 고려

- 유럽연합(EU)이 내년 탄소국경세(CBAM) 적용을 앞두고 EU 기업의 80% 이상의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6일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,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음
-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 워크 홀스트라는 “집행위의 분석 결과,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기업 중 상위 20%가 전체 배출량의 97%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했다”라고 밝혔음. 그는 “이번 조치가 기후 목표의 중요성을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, 대륙 전역의 다양한 기업들이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했음
- 이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 EU 내 20만개 기업 중 최대 18만개 기업이 더 이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됨
- 홀스트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“CBAM을 최대 수입업체로 제한하고, 대부분 기업이 규정 준수 비용과 수수료를 들이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”라고 말했음. 이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EU의 노력으로 여겨짐
- 그동안 EU와 무역 중인 전 세계 기업들은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수많은 보고서와 자료를 준비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왔음. 대부분의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(ETS)를 운영하지 않거나,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임
- 실제로 지난 3월 보고된 바에 따르면, 독일과 스웨덴에서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의 10%만이 작년에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. 특히 세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미국이나 인도와 같은 무역 상대국은 EU의 탄소국경세도라는 시스템을 강력히 비판했음
-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CBAM 시행 타임라인은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누차 강조해왔음. 이후 EU는 지난 11월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와 같은 탄소 집약적 부문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옵션을 모색하기도 했음
- 그러던 와중에 이와 같은 기업 80%에게 탄소국경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것임. EU 관계자들은 “이번 개혁의 목적은 EU 기업을 돕는 것이지, CBAM의 영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”라고 주장했다. 수입품의 95% 이상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게 이들의 말임. 그들은 또한 “CBAM을 통해 국가가 자체적인 탄소거래시스템을 시행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덧붙였다
- 홀스트라는 이와 관련해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 대다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음. EU는 “역내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 및 중국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25%, 중소기업의 경우 35%까지 줄이겠다”고 약속한 바 있음
- 올해 홀스트라는 시멘트, 알루미늄, 전기 및 수소에 적용되는 CBAM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수행할 예정임. 유리, 세라믹, 펄프, 종이 및 벌크 화학 물질과 같은 다른 부문으로 확장될 수 있음. 그는 “우리는 범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”이라고 전했음

[\(임팩트우 2025 2 8\)](#)